

7. 나의 신부가 응답하지 않고 있어!

2014.09.28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오 나의 신실한 자녀들이 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시간을 함께 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영원하게 고마워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클레어) 저는 제 자신을 볼수록, 더 당혹스러워지는데 왜 주님은 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왜 저를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도록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일 동안 저의 자만심과 주제넘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이에요. 제가 다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 주님의 은혜만이 저의 희망이에요.)

(예수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하고자 노력하는 2명이 있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멋진 것인지 알아? 너는 단지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의 준비된 신부들에게 비밀로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무너지게 될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정말 기꺼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정말 적은 것을 얻게 되더라도 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나는 가장 고마워해. 어떠한 보상도 얻지 못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계속해서 주고 또 주는 것은 정말 드문 자질이야.

(클레어) 주님, 주님이 저의 보상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은 그래야만 해. 나의 신실한 쟁기 말이 되어서 끌고 또 끌어. 심지어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에도 너희들은 여전히 끌어. 나의 신실한 자녀들은 모두 이 작은 일들에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큰 영예를 줘.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그들은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의 부족에 대해 두려워 하지말아라. 이런 사소한 것들에 너희 자신을 걱정 하지말아라. 지금 이 때에 순종한 사람들은 비록 숨겨져 있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어.

나는 지금 신부들에게 말해. 너희들은 나를 기쁘게 했어. 그것이 전부야. 너희들은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꽤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을 나의 왕국의 진주들로 봐. 아무도 그것을 너희들에게서 볼 수 없더라도, 여전히 너희들은 세상적인 보상에서 멀어지고, 단순한 순종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 그리고 자기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나와 나의 승인만을 찾았어.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보상을 줄 것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작을 것이고 안전할 거야. 사랑과 은혜와 나의 영광의 풍부한 나의 마음안에 자리잡아라. 나의 신부들이 낮아짐으로 성장함에 따라 많은 놀라움 들이 그들을 위해 있어.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은 선물들을 맡기고 그들은 그들의 일에 번영할 거야.

(클레어) 오 주님, 휴거를 그렇게나 길게 연기 시키려구요?

(예수님) 너는 정말 영리해! 나에게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네? 너에게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나는 너보다 잘 몰라.

(클레어)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 내가 널 속이겠어?

(클레어) 맏소사. 아니요!

(예수님) 좋아, 그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나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나는 전반적인 나의 교회들의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기다리고 있어.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언제 “충분해!”라고 말씀하실지 몰라.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우리는 문 앞에 와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야. 우리는 정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나의 신부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했었지만 아버지께서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관용하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야. 만약 무관심이 계속되면.. 너는 그것이 무엇일지 알수 있어.

(클레어) 주님,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정말 이걸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어요.

(예수님) 나도 알아, 이해해. 내가 알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해도 될까? 이게 얼마나 나에게 고통인지 알아? 나는 정말로 나의 신부들에게 정말 가까이 왔고 그들에게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삶에 반응하지 않고 부응하지 않고 있어. 너는 유튜브 비디오들의 응답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 너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이 어둠의 때에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것이야. 하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것이 그들의 준비부족에도 불구하고 휴거가 시작되는 신호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유야.

이해할 수 있어?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이 내 안에서 완벽해지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오, 내가 그들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들에게 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응답하지 않아. 그들이 곧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클레어)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응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저희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몇 번이고 보았어요. 주님은 정말 놀라우세요.

(예수님) 나는 정말 그래, 하지만 자유의지가 나의 손을 묶어. 나는 그들 자신의 준비를 모두 끝내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있는것에 지쳤어. 그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의미하며, 솔직히 말하면 나의 신부들이 내가 가고 있다는 징조를 무시하고 분별없이 나의 선물들을 무시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어. 내가 그들에게 주는 새로운 삶은 세상에 사로잡혀서 낭비되어지고 있어.

(클레어)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맞아, 그리고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 수반되어져.

(클레어) 저희들을 위한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하였을 때 저희가 하나의 영혼을 더 데려오기 위해 인내심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음.. 희망이 없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 거의 그 지점에 가까워졌어.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뿐이야. 나의 아버지가 언제든지 이것을 중단하라고 부를 수 있어.

(클레어) 와 정말요?

(예수님) 정말로. 이제 내가 왜 알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는지 설명해 주었으니까 너희의 불신으로 나를 아프게 하지말아라.